



오준성

김나영

한국 탁구 '희망의 샛별' 났다

탁구 국가대표팀의 오준성(19·수성방송통신고)과 김나영(20·포스코인터내셔널)이 세대 교체를 겪는 한국 탁구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오준성과 김나영은 1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막한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챔피언스 인선 2025'에 나란히 한국 대표팀 멤버로 참가 중이다.

오준성은 이번 대회에서 2회 연속 WTT 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

3일 오후 첫 경기를 치르는 오준성은 이미 지난해 개최된 WTT 챔피언스 첸나이 대회에서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중국의 세계 톱랭커들이 이달 중순 마카오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대비해 불참했지만, 유럽·일본 선수들과 경쟁해 한국에 올해 WTT 첫 우승 트로피를 선사했다.

남자 대표팀 사령탑인 오상은 감독의 아들인 오준성은 국내의 대회에서 기량을 검증받은 실력파다.

오준성, WTT 첸나이 대회 우승
남대표팀 오 감독 아들 실력 입증

김나영 첸나이대회 상위랭커 킬러
챔피언스 인선서 승... 16강 안착

그는 2023년 종합선수권 때 역대 최연소(17세)로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작년 10월 아시아선수권에선 당시 세계 1위였던 중국의 왕추첸을 단식 8강에서 3-1로 꺾는 '녹색 테이블 반란'을 일으키며 4강에 오르기도 했다.

남자대표팀은 '만형' 이상수(삼성생명)가 작년 종합선수권 단식 우승을 끝으로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해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이다.

이번 와중에 오준성이 성인 무대에서 활약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준성은 아버지 오상은 감독을 뛰어넘

은 성적을 내겠다는 각오다.

그는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잘했던 탁구 선수하면 제 이름이 나올 정도로 잘했으면 좋겠고 한국 탁구를 알릴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오상은 감독은 2005년 상하이 세계선수권 단식 동메달과 2012년 런던올림픽 단체전 은메달을 땀지만, 금메달이 없었던 만큼 아들인 오준성이 금맥을 캐주기를 바라고 있다.

'만나니' 서효원(한국마사회)이 5월 세계선수권을 끝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할 예정인 가운데 에이스 신유빈(대한항공)의 뒤를 이을 재목인 김나영도 대비 같은 존재다.

김나영은 강한 승부 근성과 공격적인 탁구로 '상위 랭커 킬러' 별명을 얻었다.

그는 지난해 첸나이 대회에 출전해 단식 32강에서 세계 36위 두호이첸(홍콩)을 3-2, 16강에서 세계 8위 오도 사쓰키(일본)를 3-1, 8강에서 세계 15위 아드리아나

디아스(푸에르토리코)를 3-0으로 차례로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세계 46위였던 세계랭킹은 첸나이 대회 활약 덕에 31위로 15계단이나 뛰어올랐다.

김나영은 안방에서 2일 열린 챔피언스 인선 단식 32강에서도 두호이첸을 다시 한번 3-2로 꺾으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국 대회 첫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줘서 기쁘다"면서 매 경기 도전한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영 소속팀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전해경 감독은 "김나영 선수가 첸나이 대회에 이어 이번 인선 대회에서도 두호이첸을 이겨 경기력을 입증했다"면서 "포핸드의 강한 회전력과 코스 변화가 돋보이는 경기였다"고 평가했다.

전 감독은 이어 "큰 키를 이용해 안정감 있는 공격력을 가져간다면 앞으로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데일리·연합뉴스

9회 말 역전 솔로포 '왕' 팀 8연승 완성한 오타니

애틀랜타전서 122m 끝내기 홈런포... 다저스 6-5 승리 견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가 오타니 쇼헤이의 9회 말 끝내기 홈런에 힘입어 개막 8연승을 내달렸다.

다저스는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시즌 MLB 정규시즌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홈 경기에서 6-5로 이겼다.

2회까지 0-5로 끌려가던 다저스는 8회 말 맥스 먼시의 2타점 2루타로 5-5 동점을 만들었고, 9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오타니의 중견수 담을 넘기는 비거리 122m짜리 굿바이 솔로포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1번 지명 타자로 나와 5타수 3안타를 친 오타니는 시즌 3호 홈런을 기록했다.

전년도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개막 8연승을 거둔 것은 올해 다저스가 최초다.

종전에는 1933년 뉴욕 양키스가 우승 다음 시즌에 개막 7연승을 달성한 사례가 있었다.

다저스의 개막 8연승은 구단이 연고지를 뉴욕 브루클린에서 LA로 옮긴 1958년 이후 구단 자체 최다 기록이고, 브루클린 시절을 포함하면 1955년 10연승, 1940년 9연승 다음가는 기록이다.

다저스는 개막 8연승 가운데 6승을 역전승으로 장식하는 등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운 위용을 뽐내는 중이다.

반면 애틀랜타는 개막 후 9연패를 당했다. 2016년 개막 9연패 이후 9년 만에 가장 부진한 시즌 시작이다. 다저스가 속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구는 다저스가 8승으로 단독 1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도 7전 전승으로 2위를 달리고 있다.

MLB에서 정규 시즌 개막 후 2개 팀이 7연승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2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경기에서 9회 말 홈런을 친 후 데이브 로버츠 감독과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쿠바 특급, 다음 시즌도 GS 유니폼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가 외국인 거포 지젤 실바(등번호 실바사진)와 일찌감치 재계약에 합의하면서 실바의 뒤를 이어 원소속팀에 남은 선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GS칼텍스는 2일 실바와 재계약 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다음 시즌 준비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올 시즌 32경기에서 1008점을 뽑아 2년 연속 득점왕에 오르며 공격종합 3위(성

공률 45.77%)와 서브 1위(세트당 0.484개)의 활약을 펼친 실바와 3년째 동행을 선택한 것이다.

GS칼텍스는 올 시즌 7개 구단 중 6위로 아쉽게 시즌을 마친 만큼 최고의 공격력을 인정받은 실바를 앞세워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헌신과 열정의 파노라마
최 광 지음

The BUCK STOPS here!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대망한다

이승만 | 조지 워싱턴 | 콘라트 아데나워 | 리관유 | 사카모토 료마 | 에이브러햄 링컨 | 윈스턴 처칠 | 마거릿 대처 | 키스 조셉 | 로널드 레이건 | 박정희 | 전두환 | 김재익 |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 덩샤오핑 | 프랭클린 루스벨트 | 당 태종 | 이세민 | 요시다 쇼인 | 후쿠자와 유키치 | 관중

북앤피플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헌신과 열정의 파노라마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적 소명을 띄고 태어났다.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자유의 본질을 설파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굴레를 해소하려 했던 지도자,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 헌신했던 지도자, 인간의 정신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거나 공산주의를 멸망시킨 지도자, 가난한 국가를 경제 대국으로 바꾼 지도자, 혼란과 분열의 구렁텅이에 빠진 나라를 구한 지도자 등 그 내용이 참으로 다양하다.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대망한다

이승만 | 조지 워싱턴 | 콘라트 아데나워 | 리관유 | 사카모토 료마 | 에이브러햄 링컨 | 윈스턴 처칠 | 마거릿 대처 | 키스 조셉 | 로널드 레이건 | 박정희 | 전두환 | 김재익 |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 덩샤오핑 | 토머스 제퍼슨 | 프랭클린 루스벨트 | 당 태종 | 이세민 | 요시다 쇼인 | 후쿠자와 유키치 | 관중

최 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현 대구대 경제금융학과 석좌교수

북앤피플 (02-2277-0220)